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Social relationships and Happiness in  
Middle-aged Housewives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이 은 주

#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유 승 현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이 은 주

이은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위 원 장 \_\_\_\_\_ 조병희 (인)

부위원장 \_\_\_\_\_ 유명순 (인)

위 원 \_\_\_\_\_ 유승현 (인)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2008년 2차 여성가족패널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지난 한 달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중년(40-59세) 여성 1,350명이 선정되었다.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요인으로 남편관계,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구학적 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주관적 건강변수를 보정한 후 위계적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편 관계만족도가 좋을수록, 부부가 함께 신체활동을 자주 할수록, 남편의 가사참여시간이 늘어날수록 주부의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주부의 친교활동이 활발할수록,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참여 횟수가 늘어날수록 행복감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인생의 중반에서 부부가 친밀감을 유지하며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행복감과 관련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친교활동과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을 할 때 행복감이 높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전업주부의 건강을 잔여적 건강의 범주에서 다룬 기존연구들의 시각에서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 등을 포괄하는 행복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복한 여성의 조건으로 남편관계,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밝힌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로의

전을 기대해본다.

주요어 : 중년기, 전업주부, 사회적 관계, 행복감

학 번 : 2011-22083

# 목 차

<b>제 1 장 서론</b> .....	<b>1</b>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목적 .....	5
<b>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b> .....	<b>6</b>
제 1 절 중년 전업주부와 행복감 .....	6
1. 중년기 .....	6
2. 중년 전업주부 .....	8
3. 행복감 .....	9
4.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 .....	11
5. 행복감 측정의 이슈 .....	14
제 2 절 기존 연구의 제한점 .....	16
<b>제 3 장 연구방법</b> .....	<b>17</b>
제 1 절 연구대상 및 자료 .....	17
1. 자료원 .....	17
2. 연구대상자 .....	18
제 2 절 연구모형 및 변수설정 .....	19
1. 연구모형 .....	19
2. 변수설정 .....	20
제 3 절 분석방법 .....	25
<b>제 4 장 연구결과</b> .....	<b>26</b>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6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6
제 2 절 대상자 특성에 따른 행복감 .....	31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행복감 비교 .....	31
제 3 절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요인 .....	33
1.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요인 .....	33
<b>제 5 장 고 찰 .....</b>	<b>35</b>
제 1 절 연구결과 고찰 및 논의 .....	35
제 2 절 연구 제한점 .....	40
<b>참고문헌 .....</b>	<b>41</b>
<b>Abstract .....</b>	<b>48</b>

## 표 목차

<표. 1> 변수구성 및 측정방법 .....	24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7
<표. 3> 연구대상자의 행복감 .....	28
<표. 4> 연구대상자의 남편관계 특성 .....	29
<표. 5> 연구대상자의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특성 .....	30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비교 .....	31
<표. 7> 사회적 관계에 따른 행복감 비교 .....	32
<표. 8>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영향요인 .....	34

## 그림 목차

<그림. 1> 성별과 연령에 따른 배우자 만족도 .....	3
<그림. 2> 연구모형 .....	1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sup>1)</sup>가 중년기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대책 담론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통계청, 2010). 중년의 시기에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역동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개인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양현주, 2005). 특히 중년기는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중년기에 폐경<sup>2)</sup>을 겪는 여성<sup>3)</sup>의 경우, 변화경험이 남성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김하나, 2009; 양현주, 2005; 이윤미 & 박형숙, 2004).

이는 여성건강이 남성에 비해 다차원적이며 차별화된 특성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로 설명되어진다(조병희, 2006). 구체적으로 남녀간 기대여명 차이를 살펴보면, 통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욱 긴 것(6.78년)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건강수명 차이는 불과 1.99년(정영호, 2012)으로 여성이 불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여성건강이 매우 취약하다는 인식이 일반화 된 가운데 최근 들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1) 1955년부터 1963년 사이(47-55세)에 태어난 사람들로 2010년 약 712.5만명으로 총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통계청, 2010)

2)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경험하는 폐경은 통상 45세-55세부터 나타나며, 50세를 기점으로 폐경을 겪음. 또한 폐경이 시작되기 약 4년 전부터 폐경 관련 증상을 겪으며, 폐경이 끝난 이후 평균 5년 정도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됨(대한폐경학회, 2006, 고지영, 2011에서 재인용)

3) 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청, 2011)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우울감이 각각 16.1%, 10.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고하였고, 30대 이후부터 여성의 우울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송향주, 2012; 양현주, 2005; 김선미, 2004). 특히, 배우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경제력이 축소되는 상황에 놓인 중년기 전업주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원결핍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늘날 중년층 공동의 관심사는 길어진 일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다. 이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여느 때보다 길어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행복한 부부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인생 백세 시대 대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중요한 가족’이라는 질문에 중년층의 88.9%가 배우자를 1위로 꼽았다. 그리고 노년기에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부부끼리 또는 혼자’라는 비율이 93.2%를 차지했다(오영희 & 김유경, 2011). 이는 오늘날 가족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중년층의 가족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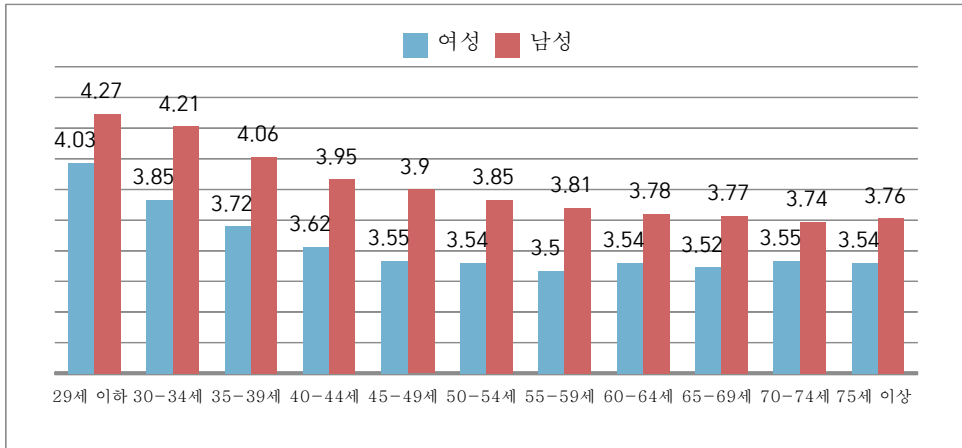
하지만 부부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욕구와는 다르게 현실에서 느끼는 부부 관계만족도에는 남녀 간 차이가 상당부분 존재한다(<그림. 1>4).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따르면 남성이 지각하는 배우자 만족도는 71.8%로 여성이 지각하는 것(59.2%)보다 12.6%p 높았다(통계청, 2012). 이는 지금까지 직장생활, 자녀양육 및 노부모 돌봄 등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살아왔던 부부가 은퇴를 앞둔 현실에서(유안진 & 김혜선, 1996)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갈등이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한경혜 & 송지은, 2001).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년기에 부부갈등을 이유로 가정상담소를 찾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국내 중년기 학자(송향주, 2012; 한경혜 & 송지은, 2001)들은 부부갈등이 극단적으

---

4) 통계청 『사회조사』의 1998년~2010년 각 년도 자료를 모두 합산한 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값임, 매우불만족-매우만족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음(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한국의 사회동향 2012』, 2012에서 재인용)

로 같 경우 가족해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행복한 부부관계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림. 1> 성별과 연령에 따른 배우자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2』, 2012에서 재인용

현재 40-59세에 해당하는 중년 전업주부의 비율을 살펴보면 40.7%로 취업주부(59.3%)보다 낮다(통계청, 2011).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역할<sup>5)</sup>은 작지 않다. 먼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대성(2006)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 1조건으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들 가운데 전업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는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5) 전대성(2006)의 논문에서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자원봉사센터(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참여자들 가운데 전업주부가 지속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고 언급함,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에서 파악한 국내 자원봉사자 현황 1위 주부(27.6%), 2위 직장인(21.3%)로 나타남

그러나 현실에서 전업주부 스스로 평가하는 삶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 삶의 질, 주관적 건강, 그리고 만족도 등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행복감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낮다고 보고했다(김여진 & 홍환, 2009; 김혜원, 1997; Nathawat & Mathur, 1993). 그러나 기존문헌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나타났다. 먼저, 행복감이나 삶의 질 등을 살펴봄에 있어 취업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동거 여부, 또는 사회활동 유무 등 단일요인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유무 및 여부로만 측정했다는 점도 기존 문헌의 한계로 언급할 수 있겠다.

물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 연구도 있다. 대표적으로 김순안 & 김승용(2011)은 사회적지지 이론 틀에 근간하여 주부의 사회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는 역시 전업주부가 취업주부<sup>6)</sup>에 비해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측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김순안 & 김승용, 2011; 이선이, 1995; 이수영 & 조옥귀, 2000; Waldron, Weiss, & Hughes, 1998; Roos et al, 2005).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정신건강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한계인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는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본 연구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긍정적 측면인 행복감(happiness/ well-being)<sup>7)</sup>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

6) 취업여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상이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됨(조금숙 & 조중열, 2004)

7) 행복감에 대해서 Veenhoven(1991)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행복감 용어는 삶의 만족도(life-satisfaction),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등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된다고 주장함. 본 연구는 Veenhoven(1991)의 행복감 정의 및 용어를 바탕으로 행복감을 살펴보았음

## 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년기에 해당하는 전업주부에 한정하였다.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그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이들의 사회적 관계<sup>8)</sup>인 남편관계,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전업주부의 남편관계,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참여, 그리고 행복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

둘째, 중년 전업주부의 남편관계,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참여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

8) 김여진 & 홍환(2009)의 연구에서 중고령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비공식 일차적 집단인 가족으로 배우자 및 관계만족도, 배우자 은퇴여부, 자녀 동거여부 등과, 비공식 이차적 집단으로 친교활동, 사회봉사활동, 경로당 및 노인정 활동 참여 여부 등을 언급하였음, 그러나 본 연구는 중년기에 해당하는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해당 시기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녀관계는 배제하였음. (더욱이 본 자료원의 경우, 자녀동거여부는 중년 전업주부의 연령대와 상관계수가  $r=.78$ 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VIF가 2.8로 매우 높은 공선성이 발생하였으므로 김태근(2006)에 근거하여 배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음), 배우자 은퇴여부는 현재 중년기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분석 시 제외하였음(본 자료원의 경우, 총 대상자 1350명 중, 배우자가 은퇴한 대상자는 13명에 불과함)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제 1 절 중년 전업주부와 행복감

#### 1. 중년기

중년기는 생애주기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 중년기 발달사를 연구한 김명자(1998)의 경우 40-59세에 해당하는 시기가 중년기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먼저, 중년기 연구의 뿌리는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성격발달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Jung(1954)의 논문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년기 연구를 활성화 시킨 학자로 Erikson(1976)이 거론된다.

Erikson(1976)은 인간의 생애주기별 발달단계<sup>9)</sup>를 8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는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는 행복감은 생애주기마다 다르며, 현재 시기의 삶에 대한 경험과 느낌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또한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이 중 중년기(30-65세)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개인의 가치관이 타인의 생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과거를 회상하며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장래의 삶을 조망하는 것에 가치를 둔 Erikson의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중년기는 개개인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삶에 대한 시각의 편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다.

Erikson과는 다른 방향에서 중년기를 바라본 김명자(1988)는 중년 시기의 가족 관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에 따르면 중년기 부부관계

---

9) 생애주기를 총 8단계로 구분함: 영아기-유아초기-유아후기-학령기-청년기-중년기-노년기

는 매우 중요하며, 이 시기에 부부가 서로를 평가하며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년기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서로의 변화를 존중한다면 보다 새롭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렇듯 역동적 변화의 시기인 중년기에 대해서 왕석순 & 서병숙(1995)은 시기별, 주제별 관련 국내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들은 ‘중년기 적응’<sup>10)</sup> 연구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를 중년기 연구의 시작점으로 보고 1980년대부터 1994년 사이에 발표된 중년기 연구들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초기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관련 연구가 주류였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이 중 연구대상이 중년 여성인 경우, 폐경의 여부를 고려하여 연구<sup>11)</sup>한 논문도 몇 편 보인다.

최근에는 사회변동, 불안정한 가족구조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중년기 관련 연구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한경혜 & 송지은, 2001). 특히 불안정한 사회구조로 인해 많은 선행연구들(송향주, 2012; 한경혜 & 송지은, 2001)은 중년기를 ‘위기’ 또는 ‘제 2의 사춘기’로 해석하였다. 반면, 한국 성인 160명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한 연구(서은국 외, 2010)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40대에 해당하는 중년 여성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중년기를 ‘위기’의 시기로 본 전자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시각에서 접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10) 왕석순 & 서병숙(1995)의 연구에서 ‘적응’ 개념을 긍정적으로는 심리적 건강, 행복, 안녕, 복지감으로, 부정적으로는 우울 및 스트레스 등으로 해석하였음(왕석순 & 서병숙, 1995 참조)

11) 왕석순 & 서병숙(1995)의 중년기 적응 문헌고찰 결과, 폐경이 중년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주장했던 대부분의 연구들은 폐경과 삶의 질의 영향력을 증명해내지 못하였음(왕석순 & 서병숙, 1995 참조)

## 2. 중년 전업주부

### 1) 전업주부

전업주부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여진 & 홍환, 2009; 김미례, 노안영, & 오명자, 2007; 양현주, 2005; 김선미, 200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0).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sup>12)</sup>(통계청, 2011)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크게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전업주부는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전업주부는 결혼함과 동시에 생기는 보편적인 역할로써,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가사일과 육아를 전담하였다. 그러나 1959년<sup>13)</sup>에 초등의무교육이 실시된 이후, 최근 코호트로 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며, 이는 여성에게서 더욱 활발히 나타났다(김주현, 2009).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노동력을 요구하였으며, 직업적 지위 및 전문성이 중요시 되는 오늘날 전업주부 역할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김선미, 2004). 김선미(2004)는 전업주부가 소수집단으로서 정체성 혼란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 밖에도 한국사회에서 전업주부는 남편관계에서 경제적, 사회심리적인 의존성과 ‘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 측면에서 취업주부의 경제력에 대한 상대적 위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향주, 2012; 김선미, 2004).

---

12) 출처: 통계청>고용, 노동, 임금> 고용>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총괄: <http://kosis.kr>

13) 1953년도 출생코호트가 이 시기 의무교육 시행의 첫 혜택을 받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3. 행복감

곽인숙(2013)에 따르면, 행복감 논의는 ‘자기성찰로서의 행복’을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Socrates에서 출발하여, 중세에는 쾌락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논의되었고, 근대에 들어서부터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Martin Seligman이 주장한 긍정심리학<sup>14)</sup>에 관심이 주목되면서 많은 학계에서 행복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이현수, 2008).

행복감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Andrews & Withey(1976)는 초기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포괄적인 시각으로 행복감을 정의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행복감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부재, 그리고 삶의 만족도 등 복합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Andrews & Withey(1976)의 정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행복감을 구체화시킨 Okun(1987)은 행복감이란 “한 개인의 정서를 강조하며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처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및 느낌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행복감을 부정적인 감정의 부재라고 언급한 Andrews & Withey(1976)의 입장에 반해 개인의 긍정적인 느낌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 독립적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Okun(1987)의 입장이다.

행복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정의를 재구성한 Veenhoven(1991)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Veenhoven(1991)에 의하면 행복감 용어는 삶의 만족도(life-satisfaction),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등과 함께 혼용된다. 국내에서 김상균(1996)은 상대

---

14) Seligman의 논지는 기존의 부정적인 심리치료 틀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행동을 발견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역할은 개인 및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임(이현수, 2008)

적 변화의 틀로써 행복감에 접근하였다. 그에 따르면, 행복감은 한 사회의 발전수준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러한 가치관은 물리환경적인 요소들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가 이러한 환경요인을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지 상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이할만한 점은 앞서 살펴본 행복감에 대한 정의가 194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의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상태”라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행복감 정의들과 맥락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Argyle(1997)은 행복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강<sup>15)</sup>을 강조했다. 즉,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할 수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건강과 행복감은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

15) 행복감과 긍정적인 감정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어 건강행동이 나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등 많은 사회적, 개인적 요소들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이러한 영향요소들에는 사회적 관계, 신체활동, 여러 유형의 여가활동, 직업상태, 사회계층, 개인적인 성향 등이 있으며, 이들은 행복감이나 감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Argyle, 1997).

#### 4.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

개인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필요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건강뿐만 아니라 안녕감을 향상시킨다(Berkman et al., 2000). 이를 사회적 관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1차적인 관계, 가족 이외의 관계가 2차적 관계로 구분된다(김주현, 2010; 김여진 & 홍환, 2009).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사회통합, 사회애착, 사회참여, 사회자본 등과 함께 통용되며 적용이론 또한 매우 다양하다(Berkman et al., 2000).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 상호교환이론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활발한 상호교환을 즐기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적 관계는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가용한 자원으로써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Antonucci, Akiyama, & Lansford, 1998). 이러한 논지에서 접근하면 사회적 관계에서도 남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중년기 이후로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는 중년기 이후 역할의 축소와 함께 상실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양현주, 2005).

뿐만 아니라 서지원(2006)은 중년기에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한 김선미(2004)는 가정에만 고립되어 있는 중년 전업주부의 경우 이들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모두 친밀한 관계라고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Van Yperen & Buunk(1990)의 견해에서 보면, 위에서 언급한 ‘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해석은 매우 조심스럽다. 특히 중년시기의 주부와 남편의 관계는 이들 관계의

특성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Rook(2001)이 언급한 친밀한 사이에서 주고받는 감정이나 의견교환은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위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친밀성에 이의를 제기한 Van Yperen & Buunk(199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에는 가까운 관계에 대한 평등함의 원칙이 매우 크게 작용됨을 강조하였다.

다른 시각에서 사회적 관계를 설명한 사회교환이론은 사람 간에 주고받는 이익의 크기에 좀 더 집중한다. 상호의존관계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만큼의 이익을 상대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서로 교환되는 이익의 크기는 비슷해야 한다는 게 Huston & Burgess(1979)의 입장이다. 실제로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을 공정하게 인지할 경우 여성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Lavee & Katz, 2002), 남편의 가사참여 시간이 늘어날수록 만족도가 높아졌다(Vannoy-Hiller & Philliber, 1989).

또한, 남편과의 관계만족도가 좋을수록, 가사도움 등 실질적 지지의 양이 많을수록, 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김혜원, 1997). 뿐만 아니라, 배우자간 의사소통 및 성생활 만족도는 주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김범준, 박영숙, & 전영민, 2005; 조금숙 & 조중열, 2004). 김승권 외(2008)의 연구에서는 가족과 결혼 영역에서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부부 관계만족도와 가사참여 분담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이제홍, 최원오, & 이혁(2008)은 건강실천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특히 전업주부 집단의 신체활동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신체활동이 적극적인 여가활동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적극적 여가활동은 전업주부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강신욱, 2002, 이제홍, 최원

오, & 이혁, 2008에서 재인용).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여가활동보다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을 할 경우 여성의 만족도가 더욱 높다는 결과도 있었다(Crawford et al., 2002; Johnson, Zabriskie & Hill, 2006). 김경미, 최인철, & 류승아(2012)는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은 중년기 부부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행복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

이렇듯 적극적 여가활동과 마찬가지로 친교활동 역시 행복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Andrews, & Withey, 1976). 남순동(2009)은 중년 시기의 친교활동은 활동 자체만으로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개인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Olsen(1979)은 다양한 차원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성이 매우 높고 궁극적으로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활동이론을 언급한 Cantor, & Anderson(1999)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며,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그는 자발성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사회통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을수록, 또는 접촉을 자주 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주의해야 할 점으로 사람마다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하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을 논할 때 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 5. 행복감 측정의 이슈

행복감은 상대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행복감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측정의 이슈가 따른다. 보건영역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sup>16)</sup>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행복감을 포함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Medical Outcome Study Short Form-36(SF-36)와 EuroQol-5 dimension(EQ-5D), 그리고 단일문항이 있다(손애리 외, 2010).

먼저, SF-36는 환자들의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질문지 내에 행복감을 묻는 문항이 들어있으며, 기존의 문항에 비해 측정이 간편하고 측정결과가 일관되며 타당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Berwick et al., 1991). 다음으로 EQ-5D는 객관적,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포괄하여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 번역판을 노인 또는 일부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손애리 외, 2010).

EQ-5D는 크게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나뉘며, ‘문제없음, 다소 문제 있음, 심각한 문제 있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sup>17)</sup>. 하지만 EQ-5D는 인구집단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 다양한 건강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이다(손애리 외, 2010). 실제로 EQ-5D척도를 사용한 기존연구들(심옥수, 2010; 김현석 외, 2008; 신경림 외, 2008)은 주로 특정질환을 가진 환자 또는 노인이 대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EQ-5D 척도는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으로 보는 ‘잔여적 건강개념’으로(조병희, 2006) 접근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하게 질병의 유무를 파악하

---

16) 보건영역에서는 삶의 질이 크게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과 비 건강관련 삶의 질(non-health-related quality of life)로 구분됨. 건강관련 삶의 질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수준으로 본인이 지각한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연관되어 느껴지는 삶의 질을 말함(손애리 외, 2010).

17) 객관적인 측정으로 이동성(mobility), 자기관리(self 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이 있으며 주관적인 측정으로 통증/불편감(pain/discomfort),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이 해당됨(손애리 외, 2010 참조).

기에는 용이하나,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신호철, 1998).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요즈음 행복하십니까?”의 단일문항 척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일문항 척도는 다차원척도에 비해 연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상의 문제가 행복감이나 삶의 질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일문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단일문항은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번역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단면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George, 2010, 이지현 & 한경혜, 2012에서 재인용).

## 제 2 절 기존 연구의 제한점

국내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한계점이 나타났다. 먼저 대상 집단의 일반화 가능성 문제이다. 이는 기존연구(김미례, 노안영, & 오명자, 2007; 양현주, 2005; 김선미, 2004)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일개지역 또는 일개단체 등에 속해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공간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동일선상에 놓고 행복감 관련 영향요인을 비교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여부에 따라 주부의 행복감을 살펴본 김윤정 & 강현정 (2013)은 취업주부의 경제활동과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을 사회참여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두 집단의 사회참여 성격은 매우 다르다. 엄밀히 말하면 취업주부의 사회참여는 경제적인 보상이 따르지만, 전업주부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과 행복감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곽금주 외, 2011; 김범준, 박영숙, & 전영민, 2005; 김윤정 & 강현정, 2013; Blanchflower & Oswald, 2004)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두 집단 간 행복감 영향요인 결과에 대한 해석은 올바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유무에 따른 비교, 특히 중년기에 해당하는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상 집단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야만 해석의 오류를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접근한 남편관계는 기존연구에서 배우자 유무 또는 만족감 등 단일요인만으로 행복감을 살펴보았다면(김주현, 2009),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측면에서 남편 관계만족도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남편의 가사참여 시간, 그리고 부부가 함께 건강생활을 영위하는지 등으로 확장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제 3 장 연구방법

### 제 1 절 연구대상 및 자료

#### 1. 자료원

본 연구는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KLoWF) 2차(2008)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자료는 우리나라 여성을 모집단으로 하는 대규모의 패널자료로 여성의 생활세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본 자료는 “인구주택 총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조사를 통해 19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여성 최종 10,719명이 확보되었다(이택면 외, 2010).

이와 같이 여성가족패널자료는 대표성을 갖는 표본임은 물론, 여성의 생활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의 관련성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하였다.

첫째, 40-59세에 해당하는 유배우, 유자녀 여성이다.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을 연구함에 있어 배우자 유무 및 자녀 유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배우자 및 자녀 유무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가장 먼저 유배우, 유자녀인 중년 여성을 택하였다. 하지만 중년기 특성 상 부부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것, 그리고 자녀관계를 고려한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영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자녀관계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위의 조건을 충족한 중년 여성 중에서 최근 1개월 이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선정하였다. 이 중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역인과성<sup>18)</sup>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경제활동 사유가 '건강문제'와 '심신장애'로 응답한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부중심 생활공간이 더욱 확대되는 중년기 배우자 별거여부는 남편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별거중인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1350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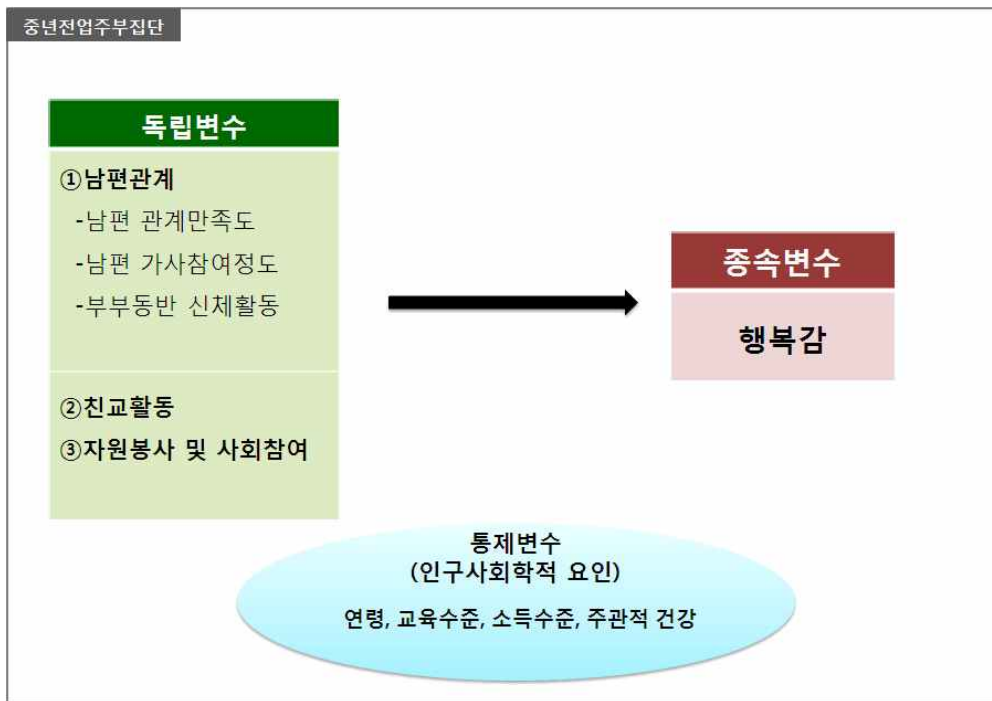
---

18) 건강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전업주부가 된 경우, 전업주부의 생활로 인해 주관적 건강이 더욱 나빠져서 순수하게 가사와 육아만을 전담하는 전업주부의 주관적 건강을 살펴보는데 과대추정 될 수 있음을 말함

## 제 2 절 연구모형 및 변수설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된 요소로 언급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남편관계,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요인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연구모형

## 1) 연구가설

[가설. 1]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건강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남편과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부동반 신체활동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친교활동,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횟수가 늘어날수록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변수설정

### 1) 종속변수

#### ① 행복감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개념이 포함된 행복감은 “전체적으로 보아 요즈음 느끼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감정”이라는 문항으로 묻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불행하다’의 1점부터 ‘매우 행복하다’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 2) 독립변수

#### ① 남편관계

중년 전업주부가 인식하는 남편과의 관계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대화 만족도, 견해일치도, 성생활 만족도,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 4점까지 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남편의 가사참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남편의 가사참여시간 변수<sup>19)</sup>를 활용하였다. 측정방법으로는 동일 자료원을 사용한 김미령(2009)의 측정 방법에 따랐다. 구체적으로는 (평일시간×5)+(주말=토요일+일요일)의 총 분을 합하여 자연로그<sup>20)</sup>를 취한 값이다.

부부동반 신체활동의 경우, ‘한 달에 한 번도 안했다’ 1점부터 ‘일주일에 2번 이상’이 5점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신체활동 참여빈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이제홍, 최원오, & 이혁, 2008)에 착안하여 사용하였다.

## ② 친교활동

친교활동은 지난 한 달간 친구, 친지, 직장동료, 이웃 등과의 친교활동 빈도를 묻고 있으며 ‘거의 매일’,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1회 정도’, ‘한 달에 2-3회 정도’, ‘한 달에 1회 정도’, ‘하지 않았다’의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활발함을 뜻하도록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0-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연속변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③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문항은 지난 한 달간 얼마나 자주 활동하

---

19)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남편의 가사참여시간 문항은 평일과 주말의 가사시간(단위: 분)을 각각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

20) 김미령(2009)의 연구와 달리 본 자료에서 가사참여시간 값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치우쳐져 있으므로 자연로그를 취하였음

였는지 그 빈도를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거의 매일’,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1회 정도’, ‘한 달에 2-3회 정도’, ‘한 달에 1회 정도’, ‘하지 않았다’의 총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역코딩으로 값을 변환하여 0-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발함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는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 3) 인구사회학적 변수(통제변수)

기존 연구에서 중년 여성의 행복감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수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건강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전업주부 행복감의 영향요인인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 ① 연령

중년 전업주부의 경우 취업주부와 달리 연령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되었다. 조금숙 & 조중열(2004)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업주부가 느끼는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짐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 ② 교육수준

전업주부의 교육수준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았고(김윤정 & 강현정, 2013), 이러한 차이는 고졸 집단에 비해 대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집단에서 행복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고학력 소지자일수록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였고, 중년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신경림 & 양

진향, 2003).

### ③ 소득수준

기존 연구(곽금주 외, 2011, 김범준, 박영숙, & 전영민, 2005; 김운정 & 강현정, 2013, Blanchflower & Oswald, 2004)들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주부에게 있어 소득수준이 주는 의미가 작지 않으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④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과 행복감의 관계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Argyle, 1997; 김명소 외, 2003; Perneger, Hudelson, & Bovier, 2004)에서 증명되었다. 스스로 건강함을 느낄수록 높은 행복함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방법은 <표. 1>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1> 변수구성 및 측정방법

변수설명		측정방법	Reference
통 제 변 수	인구 연령	(단위: 세)	[연속변수]
	사회 교육수준	0=중졸이하, 1=고졸, 2=대졸이상	중졸이하(=0)
	학적 요인 경제수준	ln가구총소득	[연속변수]
	건강 주관적 건강	매우건강, 건강, 보통, 나쁨, 매우나쁨(5점 척도)	[연속변수]
독 립 변 수	남 관계 만족도	[대화, 견해일치, 성생활, 신뢰](0-12점) 집단 평균기준 0=낮음, 1=높음	[이분변수] 낮음(=0)
	사 가사 참여정도	ln((평일시간*5)+(토요일+ 일요일))	[연속변수]
	회 부부동반 신체활동	0-5점, 높을수록 부부동반 신체활동 활발	[연속변수]
	적 친교활동	0-5점, 높을수록 친교활동 활발	[연속변수]
	관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0-5점, 높을수록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활발	[연속변수]
	계		
중 속 변 수	행복감	①매우불행~⑦매우행복	[연속변수]



### 제 3 절 분석방법

본 분석에 사용된 분석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전업주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관계 및 행복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둘째, 중년 전업주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와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sup>21)</sup>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통계패키지 SAS 9.3이 사용되었다.

---

21) 통상,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2.5가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김태근, 2006)

## 제 4 장 연구결과

###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년 전업주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먼저,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8세( $\pm 5.89$ )로, 58.37%가 40대로 파악되었다. 전업주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전체의 22.39%이며 고졸이 46.63%, 중졸 이하가 약 30.99%로 대상자 중 고졸학력 소지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전업주부 집단의 가구 월소득은 평균 318만원( $\pm 198.43$ )이었으며, 100만원 미만 이 9.02%,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400만원 이상) 집단이 전체의 33.51%에 달했다. 중년 전업주부가 인지하는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나쁨, 매우 나쁨으로 지각한 비건강의 경우는 17.04%에 해당된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구 분	N	(%)	Mean±SD
[연구대상자 특성]				
연령 <sup>1</sup>	40대(40-49세)	788	58.37	48.24±5.89
	50대(50-59세)	562	41.63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418	30.99	318.32±198.43
	고등학교 졸업	629	46.63	
	대학교 졸업 이상	302	22.39	
가구월소득 <sup>1</sup>	100만원 미만	119	9.02	318.32±198.43
	100-200만원 미만	203	15.39	
	200-300만원 미만	269	20.39	
	300-400만원 미만	286	21.68	
	400만원 이상	442	33.51	
주관적 건강 <sup>1</sup>	건강 <sup>2</sup>	1120	82.96	3.45±0.89
	비건강	230	17.04	

<sup>1</sup> 최종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가 사용됨

참고: 변수별 대상자 수는 다를 수 있음(분석 시 결측치 제외함)

<sup>2</sup> 건강: 매우건강, 건강, 보통/ 비건강: 나쁨, 매우나쁨

행복감의 경우 3분위수로 값을 나누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복감을 높게 보고한 대상자는 전체의 약 28.44%로 파악되었으며,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는 대상자가 전체의 37.78%로 확인되었다(<표. 3>).

<표. 3> 연구대상자의 행복감

변 수	구분	N	(%)	Mean±SD
[종속변수] 행복감 <sup>1</sup>	상	384	28.44	4.85±1.16
	중	456	33.78	
	하	510	37.78	

<sup>1</sup> 최종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가 사용됨

다음으로 중년 전업주부의 남편관계를 살펴보았다(<표. 4> 참조). 남편과 평소 대화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주부는 2.44%였다. 부부간 견해 일치도에서 매우 만족하는(정말 그렇다) 대상자는 9.41%에 불과하였고, 응답자의 1/4 이상이 남편과 견해 불일치를 보였다. 중년 부부간 성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79.34%였으며 만족하지 않는 비율도 약 1/5에 달했다. 만족도 중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신뢰도였으며, 대상자의 91.11%가 남편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일주일 단위로 측정한 남편의 가사참여 시간은 평균 103분(일주일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가사에 할애하는 시간이 평균보다 적은 경우 71.33%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집단과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주부의 비율이 각각 50.07%, 49.93%로 파악되었다.

<표. 4> 연구대상자의 남편관계 특성

변수	구분	N	(%)	Mean±SD
[남편관계]				
대화를 많이 함	정말 그렇다	220	16.30	1.89±0.69
	대체로 그런 편이다	788	58.37	
	별로 그렇지 않다	309	22.89	
	전혀 그렇지 않다	33	2.44	
견해 일치 정도	정말 그렇다	127	9.41	1.75±0.69
	대체로 그런 편이다	820	60.74	
	별로 그렇지 않다	340	25.19	
	전혀 그렇지 않다	63	4.67	
성생활 만족	정말 그렇다	112	8.30	1.85±0.58
	대체로 그런 편이다	959	71.04	
	별로 그렇지 않다	246	18.22	
	전혀 그렇지 않다	33	2.44	
남편에 대한 신뢰	정말 그렇다	271	20.07	2.10±0.56
	대체로 그런 편이다	959	71.04	
	별로 그렇지 않다	104	7.70	
	전혀 그렇지 않다	16	1.19	
가사참여시간 <sup>1</sup>	적음	963	71.33	103.34±199.15
	많음	387	28.67	
부부동반 신체활동 <sup>1</sup>	한 달에 한 번도 안함	674	49.93	1.09±1.34
	한 달에 한 번	249	18.44	
	2주에 한 번	158	11.70	
	일주일에 한 번	167	12.37	
	일주일에 두 번 이상	102	7.56	

<sup>1</sup> 최종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가 사용됨

중년 전업주부의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횟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친교활동의 경우 일주일에 2-3회가 25.56%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매일 친교활동을 하는 주부가 12.37%로 보고되었고, 전혀 하지 않는 주부의 경우 144명(8.44%)에 달했다. 자원봉사 및 사회에 참여하는 주부는 20.52%였으며 대상자의 79.48% 정도가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특성

변수 구분	N	(%)	Mean±SD
친교활동 <sup>1</sup>			
하지 않음	114	8.44	
한 달에 1회	189	14.00	
한 달에 2-3회	247	18.30	
일주일에 1회	288	21.33	2.79±1.49
일주일에 2-3회	345	25.56	
거의 매일	167	12.37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sup>1</sup>			
하지 않음	1073	79.48	
한 달에 1회	123	9.11	
한 달에 2-3회	58	4.30	0.42±0.97
일주일에 1회	65	4.81	
일주일에 2-3회	24	1.78	
거의 매일	7	0.52	

<sup>1</sup> 최종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가 사용됨

## 제 2 절 대상자 특성에 따른 행복감

###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행복감 비교

앞서 살펴본 중년 전업주부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p < .001$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p < .001$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p < .001$ ),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보고한 집단일수록 행복감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p < .001$ ).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비교

변 수	구 분	N	Mean±SD	F
[연구대상자 특성]				
연령	40대(40-49세)	788	4.96±1.14	18.70***
	50대(50-59세)	562	4.69±1.16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418	4.63±1.13	19.63***
	고등학교 졸업	629	4.84±1.15	
	대학교 졸업 이상	302	5.17±1.1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19	4.55±1.31	19.78***
	100-200만원 미만	203	4.61±1.22	
	200-300만원 미만	269	4.56±1.20	
	300-400만원 미만	286	4.88±1.11	
	400만원 이상	442	5.20±0.97	
주관적 건강	건강	1120	4.91±1.13	21.01***
	비건강	230	4.53±1.25	
초중고자녀	없음	676	4.73±1.14	13.47***
	있음	674	4.96±1.17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 <표. 7>은 사회적 관계에 따른 행복감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남편관계에 만족하는 중년 전업주부집단, 남편의 가사참여시간이 많은 경우, 그리고 부부 동반 신체활동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친교활동 참여빈도가 증가할수록, 자원봉사 및 사회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높은 행복감과 관련이 있었다.

<표. 7> 사회적 관계에 따른 행복감 비교

변 수	구 분	N	Mean±SD	F
남편관계만족도	낮음	502	4.23±1.13	272.94***
	높음	848	5.21±1.01	
남편가사참여시간(단위: 분)	적음	963	4.79±1.14	9.78**
	많음	387	5.00±1.20	
부부동반 신체활동	한 달에 한번도 안함	674	4.65±1.19	16.75***
	한 달에 한번	249	4.80±1.09	
	2주에 한번	158	4.96±1.04	
	일주일에 한번	167	5.30±1.11	
	일주일에 두번 이상	102	5.33±1.00	
친교활동	하지 않음	114	4.34±1.16	17.29***
	한 달에 1회	189	4.53±1.18	
	한 달에 2-3회	247	4.72±1.11	
	일주일에 1회	288	4.83±1.13	
	일주일에 2-3회	345	5.03±1.10	
	거의 매일	167	5.38±1.11	
자원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하지 않음	1073	4.78±1.14	5.26***
	한 달에 1회	123	5.00±1.12	
	한 달에 2-3회	58	5.16±1.47	
	일주일에 1회	65	5.11±1.24	
	일주일에 2-3회	24	5.58±0.97	
	거의 매일	7	5.57±0.53	

\* p < .05, \*\* p < .01, \*\*\* p < .001



### 제 3 절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요인

#### 1.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요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상관분석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변수 간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위계적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그리고 주관적 건강 변수를 투입하였다. 연령을 제외한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건강만이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주관적 건강을 보정하고 남편관계와 행복감을 살펴본 모형 2는 모형 1과 비슷하게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시간이 늘어날수록, 부부동반 신체활동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p < .001$ ).

모형 3은 친교활동과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친교활동과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변수도 남편관계와 마찬가지로 행복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친교활동의 빈도가 많아질수록,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횟수가 증가할수록 행복감과 정적관계를 보였다( $p < .05$ ). 반면, 중년 전업주부의 친교활동, 그리고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와 행복감이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 교육수준에서의 유의성은 관찰할 수 없었다.

<표. 8>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 관련 영향요인

변 수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beta$	$\beta$	$\beta$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단위: 세)	0.004	0.005	0.002
교육수준(Ref.=중졸이하)		0.205***	0.094*	0.070
가구총소득(log)	(단위: 만원)	0.081***	0.068**	0.059**
[건강변수]				
주관적 건강		0.142***	0.093**	0.072*
[남편관계]				
관계만족도(Ref.=낮음)			0.833***	0.801***
가사참여시간(log)	(단위: 분)		0.039***	0.040***
부부동반 신체활동	(단위: 빈도)		0.078***	0.056*
[남편 외 관계]				
친교활동	(단위: 빈도)			0.134***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단위: 빈도)			0.068*
F-value		16.98***	47.88***	45.28***
R <sup>2</sup>		0.0493	0.2041	0.2380

\* p < .05, \*\* p < .01, \*\*\* p < .001

## 제 5 장 고 찰

### 제 1 절 연구결과 고찰 및 논의

본 연구는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중년 전업주부의 평균 연령은 48세로 파악되었고, 대상자의 46.63%가 고등학교 졸업자이었다. 가구 월 소득은 평균 318만원이었고, 82.96% 이상이 건강군에 해당하였다. 대화, 견해일치정도, 부부간 성생활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신뢰도로 측정된 관계만족도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로 나타났다. 만족도 문항 중 평균이 가장 높았던 남편에 대한 신뢰도는 91.11%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남편의 일주일 가사참여시간은 평균 1시간 43분으로 파악되었고, 50.07%의 부부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신체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25.56%의 주부만이 주 2-3회 활발한 친교활동을 하였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를 하는 주부는 20.52%였다. 특히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에서 기존 연구(김정연, 2003)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이는 자녀 키우기에 대한 역할이 어느 정도 줄어든 중년시기 특징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사회적 관계는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행복감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학력 소지자일수록 높은 행복감을 보인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김윤정 & 강현정, 2013; 김정연, 2003; 신경림 & 양진향, 2003). 남편관계에서는 남편 관계만족도가 좋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부부가 함께 신체활동을 자주 할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교활동과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횟

수가 늘어날수록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보정한 후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부부관계에 만족할수록, 부부가 함께하는 신체활동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남편의 가사참여시간이 늘어날수록,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이 긍정적인 방향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친교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횟수가 증가할수록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특이할만한 점은 중년 전업주부의 친교활동, 그리고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와 행복감이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 교육수준의 유의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 고찰에 앞서, 기존문헌을 통해 한국 중년남성이 인지하는 행복감과 아내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년 직장남성의 행복감에 가족과 직무만족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0대와 50대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에서(곽금주 외, 2011) 40대와 50대 남성 각각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단연 부부관계와 직무만족도였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40대 남성이 느끼는 행복감과 50대 남성이 느끼는 행복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직장활동이 왕성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잡기 시작한 40대 남성은 직장생활이 그들의 행복감을 좌우하는 주요변수였다면, 50대 즉, 은퇴의 시기로 갈수록 행복감의 원천이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고찰함에 있어 중년 남성과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를 언급한 이유는 중년 전업주부에게 남편관계와 행복감이 주는 일방향적인 의미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년기 부부관계 중요성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아닌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부가 서로의 존재 및 중요성을 재판단하고 인식해야한다는 기존 견해(서지원, 2006; 한경혜, 김주현, & 김경민, 2003)를 뒷받침해준다. 이는 인생의 중반에서 서로

에 대해 지금까지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역할 재조정을 통해 제 2의 행복한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부부가 함께 건강생활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노후를 더욱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미리 대비한다는 시각에서 보면(장은정, 2006),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입증한 선행연구(Johnson, Zabriskie & Hill, 2006; Crawford et al., 2002)들 중 일부는 부부가 쌍으로 설문에 참여하여 부부동반 신체활동을 포함한 여가활동과 만족감의 긍정적인 관계를 증명하였다. 특히 Kelley(1979)는 상호의존이론의 관점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공동의 관심사(Kelley, 1979; Crawford et al., 2002에서 재인용)로 보았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김경미, 최인철, & 류승아, 2012)에서는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가족의 결속감 및 유대감이 높아지며 특히 중년기에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해주었다. 그리고 부부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때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구재선 & 김의철, 2006)는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증명해준다.

마지막으로 친교활동과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그리고 행복감은 정적관계를 보였다. 즉, 타의에 의한 움직임이 아닌 자발적인 봉사 및 사회참여로의 전환이 행복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인 중년 전업주부의 경우 역할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전경숙(2010)과, 미래의 삶을 조망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Erikson(1976)의 논지에서 살펴보았을 때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행복한 여성의 조건으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여러 선행연구(김여진 & 홍환, 2009; 양현주, 2005; 김명소 외, 2003)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활동 유형보다는 사회활동

특성이 중년 전업주부의 주관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한 가지 이상의 사회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친교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친교활동의 빈도가 많아질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김여진 & 홍환(2009)의 연구에서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전업주부 집단에서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취업주부들은 직장에 소속되어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전업주부에게 있어서 가정은 사회와 단절된 공간일 수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은 그들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감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참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과 의미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강한 열망을 충족시켜 준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분위기는 사회통합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대비되는 자원봉사활동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주부 봉사자는 사회적 교류를 통해 본인 스스로는 물론, 타인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는 중년층이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은 물론, 스스로의 역량으로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돕고, 결과적으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경험한다는 전경숙(2010)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중년 전업주부의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를 보정한 후 행복감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수준의 유의성은 사라졌다. 이는 과거에 한국사회에서 학연을 통한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면, 최근으로 갈수록 친교활동, 그리고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가 학연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활동을 통해 또 다른 인맥형성이 가능하리라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주부건강을 잔여적 건강개념의 범주에서 접근한 기존연구들의 시각에서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 등을 포괄하는 행복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결과, 행복한 중년 전업주부의 조건으로 남편관계, 친교활동,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삶의 재조정이 필요한 이 시기에 주부들의 관심사를 지역사회로 향하게 하는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중년 전업주부의 숨은 역량을 끌어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중년 전업주부의 행복감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로 전이되리라 기대해본다.

## 제 2 절 연구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건강과 행복감의 높은 상관성을 언급하였다. 건강한 주부가 그렇지 않은 주부보다 원만한 부부관계, 활발한 친교 활동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건강한 주부의 행복감이 더 높다는 결론은 쉽게 도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강하기 때문에 상위의 모든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주부에게서 낮은 행복감은 예상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역인과성의 위험을 줄이고자 현재의 건강상태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과거시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점은 단면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2차 자료의 한계로 인해 중년여성의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건강상태인 만성질환의 유무나 폐경의 여부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의 특성상 중요시 되는 개인성향을 고려할 수 없었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의 시각에서 중년 전업주부의 삶과 행복감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가장 대표성 있는 대규모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 둘째, 중년기 전업주부의 상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많은 대상자 수가 확보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역인과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종단연구가 시도되어야 하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신체적 건강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곽금주, 민하영, 김경은, 최지영, & 전숙영. (2011). “중년 직장 남성의 가족 관계, 가족 외 관계 및 직무만족이 행복심리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3), 115-133.
- 곽인숙. (2013). “노인과 예비노인의 가정건강성과 행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1) 1-16.
- 고지영. (2011). 『폐경기 여성의 삶의 질과 정책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구재선, &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12(2), 77-100.
- 김경미, 최인철, & 류승아. (2012). “가족간 식사, 통화 및 여가활동과 중년기의 행복”.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18(2), 279-300.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2(2), 1-33.
- 김명자. (1998). 『중년기 발달』, 교문사.
- 김미령. (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 35-61.
- 김미례, 노안영, & 오명자. (2007). “Adler의 생활양식이론의 관점에서 본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관심정도 및 활동수준과 주부 생활스트레스의 관계”. *상담학연구*, 8(3), 935-950.
- 김미영. (2010). “한국 중고령자의 사회계층 및 사회적관계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유배우자 및 유자녀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범준, 박영숙, & 전영민. (2005). “경제적 어려움, 대처행동, 가족간 의사소통이 주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심리학회지*, 10(1), 37-59.
- 김상균. (199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나남.

- 김선미. (2004). “30·40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경험과 정체성유지를 위한 대응양식 :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순안, & 김승용. (2011).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중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2(-), 109-129.
-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 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여진, & 홍환. (2009). “중고령 전업주부와 취업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93-118.
- 김윤정, & 강현정. (2013).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3), 1090-1099.
- 김정연. (2003). “수도권·신도시 지역 주부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주현. (2009). “중·노년기 건강에서의 젠더 차이”.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태근. (2006). 『U-CAN 회귀분석』, 인간과복지.
- 김하나. (2009). “중년 우울증 여성들의 생애 경험에 대한 인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현석, 이규백, 이용수, 김향, 서병성, 임세원, & 신호철. (2008). “혈액투석 환자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대한신장학회지, 27(1), 78-84.
- 김혜원. (1997). “사회구조적 변인과 사회적 지원에 따른 취업주부·비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 2(1), 115-136.
- 남순동. (2009). “중년여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예측모형”. (국내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 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213-232.

- 서지원. (2006). “중고령기 건강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4(10), 133-144.
- 손애리, 윤주탁, 고승덕, & 천성수. (2010). “서울시 지역주민의 인구 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상태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 27(4), 141-152.
- 송향주. (2012). “중년여성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향상을 위한 TSL 프로그램 효과”. (국내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신경림, 변영순, 강윤희, & 옥지원. (2008). “재가 노인의 주관적 신체증상,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건강관련 삶의 질”. 대한간호학회지, 38(3), 437-444.
- 신경림, & 양진향. (2003). “농촌 중년여성의 삶의 질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3(7), 999-1007.
- 신호철. (1998). “건강관련 ‘삶의 질’의 정의”. 가정의학회지, 19(11), 1008-1015.
- 심옥수. (2010). “혈액투석노인의 건강상태 변화인식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30(1), 179-194.
- 양현주. (2005). “중년기 전업주부의 생성감과 가족관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오영희, & 김유경. (2011). “백세시대 대응 국민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80(1), 39-52.
- 왕석순, & 서병숙. (1995). “중년기 적응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한국노년학, 15(1), 54-73.
- 유안진, & 김혜선. (1996). 『인간발달』,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이선이. (1995). “가정주부와 취업주부의 생활사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 9(2), 69-79.
- 이수영, & 조옥귀. (2000).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수준의 비교”.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13(1), 45-65.

- 이윤미, & 박형숙. (2004). “중년여성의 운동행위 변화단계, 운동 자기효능감, 우울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3), 218-225.
- 이제홍, 최원오, & 이혁. (2008). “전업주부의 생활체육 참여특성과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4(1), 617-630.
- 이지현, & 한경혜. (2012).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170-205.
- 이택면, 민현주, 주재선, 김승연, & 이주영. (2010). 『제 2차 여성가족패널 자료 사용자 안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현수. (2008). 『긍정적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장은정. (2006). “부부간 인식차이에 따른 은퇴 후 가족관계 변화”.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전경숙. (2010). “한국 중년의 안녕감 : 행복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척도 개발 및 집단 간 비교”. (국내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전대성. (2006).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정영호. (2012).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 보건복지포럼, 193, 5-18.
- 조금숙, & 조증열. (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 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여성심리학회지, 9(3), 27-41.
- 조병희. (2006).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파주, 집문당.
- 통계청. (20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총괄. 통계청 : <http://kosis.kr>
-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2』, 통계청 보도자료.
- 한경혜, 김주현, & 김정민. (2003).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과

-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3(2), 155-170.
- 한경혜, & 송지은. (2001). “중년 남성의 건강에 가족 및 직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1), 51-7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0). 『전업주부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spective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 Antonucci, T. C., Akiyama, H., & Lansford, J. E. (1998). “Negative Effects of Close Social Relations”. *Family Relations*, 47(4), 379-384.
- Berkman, L. F., Glass, T., Brissette, I., & Seeman, T. E. (2000). “From Social Integration to Health: Durkheim in the New Millennium”. *Social Science & Medicine*, 51(6), 843-857.
- Berwick, D. M., Murphy, J. M., Goldman, P. A., Ware, J. E., Barsky, A. J., Weinstein, M. C. (1991). “Performance of a Five-Item Mental Health Screening Test”. *Medical Care*, 29(2), 169-176.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 1359-1386.
- Cantor, N., & Anderson, C. A. (1999). 『*Life Task Participation and Well-Being: The Importance of Taking Part in Daily Life*』. In D. Kahneman et al (Ed.),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Sage.
- Crawford, D. W., Houts, R. M., Huston, T. L., & George, L. J. (2002). “Compatibility, Leisure, and Satisfaction in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433-449.

- Erikson, E. H. (1976). "Reflections on Dr. Borg's Life Cycle". *Daedalus*, 105(2), 1-28.
- Huston, T. L., & Burgess, R. L. (1979).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An Overview*』 . In R. L. Burgess & T. L. Huston (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New York: Academic Press.
- Johnson, H. A., Zabriskie, R. B., & Hill, B. (2006). "The Contribution of Couple Leisure Involvement, Leisure time, and Leisure satisfaction to Marital satisfaction". *Marriage & Family Review*, 40(1), 69-90.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 In (R.F.C Hull, Trans.), Princeton, N.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vee, Y., & Katz, R. (2002). "Division of Labor, Perceived Fairness, and Marital Quality: The Effect of Gender Ideolog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27-39.
- Michael Argyle. (1997). "Is Happiness a Cause of Health?". *Psychology & Health*, 12(6), 769-781.
- Nathawat, S. S., & Mathur, A. (1993). "Marital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Indian-Educated housewives and working women". *The Journal of Psychology*, 127(3), 353-358.
- Okun, M. A. (1987). 『*Life Satisfaction*』 . In G. L. Maddox(Ed.).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 Springer
- Olsen, J. K. (1979). 『*The effect of change in activity in voluntary associations on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60 and over who have been active through time*』 . University of Maryland.
- Perneger, Th. V., Hudelson, P. M., & Bovier, P. A. (2004).

- "Health and happiness in young Swiss adults". *Quality of Life Research*, 13(1), 171-178.
- Rook, K. S. (2001). "Emotional health and positive versus negative social exchange: A daily diary analysi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5, 86-97.
- Roos, E., Lahelma, E., Saastamoinen, P., & Elstad, J. I. (2005). "The association of employment status and family status with health among women and men in four Nordic countrie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3(4), 250-260.
- Vannoy-Hiller, D., & Philliber, W. W. (1989). 『*Equal partners: Successful women in marriage.*』 . Newbury Park, CA: Sage.
- Van Yperen, N. W., & Buunk, B. P. (1990). "A longitudinal study of equity and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4), 287-309.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 Waldron, I., Weiss, C. C., & Hughes, M. E. (1998). "Interacting Effects of Multiple Roles on Women's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3), 216-236.

## Abstract

# Social relationships and Happiness in Middle-aged Housewives

**Lee Eunju**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social relationship,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happiness in middle-aged full-time housewives. Data from the 2008 Second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was used, and participants were middle-aged full-time housewives (n=1,350) who have spouses and children and do not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To examine characteristics related to happiness in middle-aged housewives, social relationships, such as relationship with spouse, social activities, volunteering and social participation, were analyzed.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and subjective health were controlled, and hierarchical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indings show that higher marital satisfaction, more frequent engagement in physical activities in married couples, and longer



duration of household chores in husband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happiness in housewives. Also, women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ies and frequently took part in volunteering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were more likely to be happy. Maintaining intimacy and engaging in healthy behaviors together as married coupl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happiness in middle-aged women. Furthermore, middle-aged full-time wives tended to have higher level of happiness when they engaged in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at examined health of full-time housewives in terms of residual health, this study focused on happiness, which encompasses physical, men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ly, findings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marital relationship, social activities, volunteering and social participation in women's pursuit of happiness.

The current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investigates happines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middle-aged full-time housewives. One can anticipate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mong middle-aged full-time housewives as well as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Keywords : middle-aged, housewives, social relationships, happiness**

***Student Number : 2011-22083***